

민주노총, IT연맹 가입 승인

25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의 민주노총 가입이 확정됐다. 25일 개최된 2004년 제9차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KT노동조합과 KTF노동조합이 가맹돼 있는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의 민주노총 가입을 승인했다.

한국의 IT산업은 그 기술력을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IMF 이후 급속히 무너지는 한국경제를 되살린 것이 IT산업이다. 대표적인 초고속 인터넷의 경우 그 기술력과 가구당 가입 자율이 세계 최고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산업은 한국경제의 주춧돌이 되었다. 현재 거의 모든 정보들은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고 있으며 한시라도 컴퓨터나 인터넷이 없이는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일관되지 않고 오히려 규제를 남발함으로 인해 기업들의 성장기회를 막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만 가속시켜 왔으며, 정부는 수차례 이벤트성 지원약속을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 육성분야에 대해서는 유효경쟁 또는 후발업체 보호라는 명목으로 신성장을 가로막아왔다.

또한 이처럼 IT산업이 걸은 화려하지만 내적으로 IT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으며, 원청과 하청, 도급으로 이어지는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만들어 냈다. 이제 IT노동자들의 단결은 역사적인 요구와 흐름이 되었다.

이로인하여 지난 7월30일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은 창립식을 통하여 IT노동자들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IT산업 노동자의 대동단결을 통해 한국 IT노동자 단결의 구심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IT연맹을 창립하였다.

이제 민주노총 산하 IT연맹은 안으로는 IT산업 노동자의 구심으로 그 지위를 공공히 하고 업종별 교섭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며, 밖으로는 정부의 통신정책 등에 적극 대응해 정통부의 잘못된 정책 등을 지적하고 수정하여 국민을 위한 정책, 그리고 합리성을 기반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갈 것이다.

중앙상집 하반기 핵심사업 공유

상품판매 · 단체교섭 등 각종 후속조치 이행에 박차 가할 것

중앙상집은 23일 09:20분 회의를 열고 2004년도 하반기 핵심사업에 대해 공유했다.

정책기획실은 ▲상품판매 관련 합의사항 후속조치(△반납회수, 금전적 보상실태 분석 △허수경영 감시) ▲단체교섭 합의사항 후속조치(△주5일제 관련: 토요일 창구근무, 변칙근무 근절, 주5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단체보험) ▲우리사주조합장 직선제 추진 ▲ 대내외 정책활동(IT연맹활동, 통신정책 및 환경 개선 활동) ▲조직안정 및 활성화

화 등 하반기 핵심사업을 설명했다.

또한 교육선전실은 하반기에는 교육사업 강화하고 동아시아 통신노동조합 포럼, UNI 행사 등 국제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지재식위원장은 “이제 단체교섭 이후 후속조치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조합원들로부터 많은 문의가 있는 휴일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인력은 장기적으로 충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IT연맹에 중앙상집 인재홍 국장과 김영삼 국장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8월 성과급 지급 완료

2004년 상반기 부서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 직원
 - 임원/상무대우/운동선수단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제외, 청원경찰 포함
 - 기본급(기준연봉)이 지급되는 직원에 한함
- ▶ 지급율
 - 호봉제 직원 : 기본급의 100% ± 5%
 - 연봉제 직원 : 기본연봉 월정액의 100% ± 15%
- ▶ 지급일 : 2004.8.25 (보수지급일)

2000~2002년 경영성과급에 대한 고용보험료 환급

2000년부터 2002년 경영성과급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반환 받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다 음 -

■ 환급액: 직원부담금 1,797,778천원(1인당 평균 37,130원)

■ 환급대상: 재직직원 38,088명·퇴직직원 10,332명

■ 환급계획

- 재직직원: 8월 25일 별도계좌로 입금
- 퇴직직원: 퇴직금 입금계좌로 입금(입금계좌 상이시 개인별 통보받아 입금)

한편 고용보험료는 임금총액의 1.75%(회사 1.3%, 직원 0.45% 부담:1999년~2002년은 직원부담 0.5%)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고 있으며 2002년 12월 행정심판을 통해 “경영성과 배분금은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금액 등이 결정되는 한 반복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내려졌다.

전남지본, 수재민 돕기 봉사 나서 지재식위원장 격려차 방문키로

지재식위원장은 24일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전남 나주를 방문해 수재민 돕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남지방본부 상집과 지부·분회장을 격려했다.

지재식위원장은 수해복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전남지방본부 조합간부들을 만나 태풍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솔선 수범하는 간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이재식위원장은 태풍으로 인해 긴급 복구활동에 여념이 없는 나주지부 및 영업국, 망조합원들을 만나 격려했으며 나주지점에 상주하는 상품판매요원과의 간담회를 열어 “인권침해에 대해 조합에서 대처해달라”는 조합원들의 요청에 “중앙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해 전국에서 5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으며 1,218세대 2,42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주택 98동이 파손됐다. 특히 전남 지역이 태풍 메기의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산업 안전

바이러스성장염, 피부건조증 주의보

가을은 청명한 하늘과 더불어 어느 때보다 바깥 나들이를 하기에 좋은 계절이지만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가을철에 발생이 잦은 바이러스성 장염과 피부 건조증에 대해 알아본다.

■ 급증하는 바이러스성 장염 주의보

한낮의 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바이러스성 장염 환자가 급증한다. 바이러스성 장염은 특히 2~3세 이하 어린이에게 감기 다음으로 흔한 질환으로 벌써 소아과에는 소아 장염 환자가 넘쳐나고 있다.

바이러스성 장염은 일반인이라도 임상 증상만으로도 세균성 장염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질, 살모넬라, 대장균 등 세균에 의한 장염에 걸리면 대개 배가 싸르르하게 자주 아파 오면서 코 같이 끈끈한 점액이 섞인 대변을 조금씩 자주 보게 되며 가끔 혈변을 보거나 열이 오래 지속되기도 한다. 하지만 바이러스성 장염은 주로 물이 많이 섞인 설사를 하며 심하면 하루에도 10회 이상의 물똥을 싸게 된다. 배는 많이 아파하지 않으나 수분이 소실돼 탈수가 잘 오므로 주의해야 한다. 바이러스성 장염은 설사를 시작할 때 하루 정도 잠깐 열이 나기도 하지만 없는 경우가 많고 혈변을 보는 경우는 없다.

어린이의 바이러스성 장염에는 설사를 멈추게 하는 지사제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지사제는 이미 장에서 빠져나온 물이 항문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변을 굳게 하는 것이므로 지사제를 쓰는 경우 실제로는 설사 때문에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고 탈수가 심한데도 겉으로는 설사가 없는 것 처럼 보여 병의 경과를 잘못 판단하기 쉽다.

설사가 심한 어린이에게는 탈수를 막기 위해 먹이던 분유나 모유 대신 6시간에 서 8시간 가량 어린이 설사용 전해질 용액(포도당 전해질 용액)을 먹이게 되는데 이처럼 하면 설사가 현저히 감소되면서 탈수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설사용 전해질 용액은 근처 소아과의원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설사하는 어린이의 탈수 방지를 위해 어른들이 즐겨 먹는 청량음료나 시중에 파는 수분 전해질 보충음료는 성분이 다른 만큼 먹이지 않아야 한다.

바이러스성 장염은 대변에 있는 바이러스가 입으로 들어와 전염되는 것인 만큼 손을 자주 씻고 환자를 격리시켜 접촉을 피해야 한다.

■ 가을 피부 건조증

가을에 피부 건조증이 생기는 이유는 찬바람과 함께 습도가 낮아지고 여름 내 받았던 자외선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피부건조증이 생기면 가려움을 참지 못하지만 피부를 긁어 각질을 일으키거나 또 이 각질을 자주 벗겨내는 것은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켜 건조함을 촉진하는 만큼 하지 말아야 한다.

각질은 유분 부족이 아닌 수분 부족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영양크림처럼 유분 함량이 높은 화장품을 덧바르는 것은 오히려 모공을 막아 피부호흡을 방해할 수 있다. 적당량을 덜어 쓰되 흡수가 잘 되도록 손끝으로 두드리면서 발라주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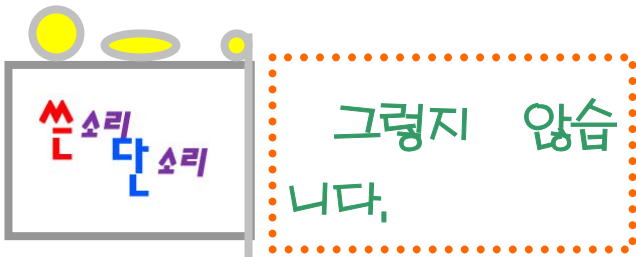
피부건조증이 있을 때는 생활환경과 습관을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다. 가습기 등을 이용해 실내 습도를 40% 정도로 유지해주고 옷은 가급적 자극이 없는 면제품을 입으면 가려움증이 완화된다. 뜨거운 물 목욕이나 지나친 비누의 사용은 피부보호막을 형성하는 피지를 제거하므로 가급적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한다. 샤워 후에는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줘야 한다. 또한 하루에 물을 6~8컵 정도를 마셔 피부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좋다.

4주간KTTU

특히 지성피부도 무리하게 유분을 제거하면 건조증이 쉽게 올 수 있다. 지성피부 역시 여름을 나면서 피지와 땀의 분비가 많아 유.수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지성피부라도 지나친 유분 제거는 피부의 탄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유분 제거를 피하고 수분을 공급해 줘야한다.

[출처 : 연합뉴스 건강관리편]



[출처 : 노동조합 게시판 2004-8-27]

사무직 직원에 대하여 영업직 5년 근무를 명문화 할 것이 아니구요. 영업부서에는 영업을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모여서 조직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꾸준히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해병대가 "해병의 가치와 자존심을 이해하는 사람들로" 모집하여 진짜 해병으로 키우듯이 영업부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직 이라고 해서 영업을 목적으로 입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업을 전문으로 할려면 영업직을 별도로 채용하거나 오히려 기술직이 영업으로 대거 이동해야 할것입니다.

저는 영업인은 KT 내에서도 가장 전문적 집단이며, 영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그런 현상은 심화될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영업의 중요성은 기업의 핵심입니다. 수많은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영업력의 부족으로 부도나는 수많은 IT 벤처기업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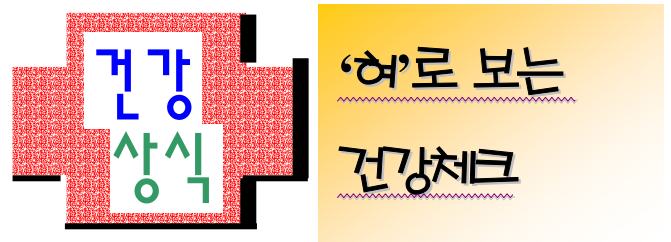
이번 발탁승진자의 대부분은 밤낮으로 연구하고 공부하여 영업에서 남보다 두각을 낸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 KT의 인사가 바로잡혀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6 시그마 분야에서도 성과에 비해 다소 무리가 있는 인사가 있었지만, 남보다 앞서 경영방침을 수용하고 그 어려운 공부를 하여 과제를 수행한 사람이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 영업부서는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전문가적 자질을 가진 마케팅인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PCS 단순판매의 시대는 자연스런 인력재배치와 함께 영업부서에서도 사라지게 될 것 이므로, 핸드폰 판매가 싫어 영업을 겁내지는 마십시오.

또한 영업인은 뭐든지 다 잘해야 하는 정도 기억해야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건강상식]

많은 사람들이 하루 수차례 양치질을 하면서도 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혀의 색깔이나 굳기, 통증 등을 통해 몸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혀는 유두라는 돌기(일부제거함)에 있는 미뢰를 통해 맛을 느낄 뿐 아니라, 병이 생기면 통증, 색깔, 굳기 등 다양한 신호를 보내 개인의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

실제로 건강한 사람의 혀는 산뜻한 핑크색 또는 약간의 흰색이 섞인 핑크색이다.

보통사람보다 설태(백태, 혀바닥에 끼는 이물질)가 많거나, 혀의 색깔이 비정상적으로 붉거나, 창백한 것은 혀의 이상상태를 나타낸다.

혀에 이 같은 이상증세가 오래 지속된다면 각종 질환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가장 흔한 혀의 이상 증상으로는 '설태(舌苔)'를 들 수 있다.

이 증상은 혀의 윗면에 회백색의 이끼와 같은 이물질이 생기는 것인데, 대부분 음식물 찌꺼기나 점액 같은 것들이 붙어 굳어진 것이다.

높은 열이 나는 병이나 위장병, 구내염 등으로 생기지만 회복되면 곧 없어진다.

혀에 갈색 또는 암갈색의 이끼 같은 것이 달라붙으면 위장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다. 위염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만큼 병원을 찾아 정밀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항생제 과용으로 생기는 검은 설태도 있다. 가끔 감기가 낫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검은 설태가 생기기도 한다.

또한 혀가 창백하면 빈혈, 청자색이면 선천성 심장기형을 의심할 수 있다. 혀에 통증이 지속되면 당뇨나 빈혈일 가능성이 있으며, 염증을 동반하고 3 주 이상 궤양과 출혈이 계속되면 혀암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이비인후과를 찾아 검사받는 것이 좋다.

혀에 생기는 병은 대부분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지만 혀암은 치료율이 낮으며, 혀 밑에 암이 생기면 조기 발견을 해도 5 년 생존율은 60~70%에 불과하다.

혀암은 다른 암에 비해 다른 조직으로 전이가 매우 빠른게 특징이다. 혀암은 혀의 가장자리에 주로 생기는데, 혀가 헐고 딱딱해지며 통증과 출혈이 있는 것이 주요 증상이다.

혀암의 주원인은 담배. 매년 100~200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며, 남자 환자 수는 여자보다 3 배 정도 많다.

혀의 건강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혀를 윗니로 가볍게 문질러 백태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약간 거칠거칠한 감촉이 느껴지면 정상이다.

아침에 일어나 양치질하기 전에 거울을 보며 체크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백태의 색이 짙고 층이 두텁다면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증거다.

혀에 가장 유해한 것은 역시 음주와 흡연이다. 과음한 다음 날 혀에 궤양이 생기거나 까칠해지는 등의 반응이 바로 오는 경우가 그 예다. 술, 담배는 바이러스와 함께 혀암의 3 대 원인이기도 하다.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안순현 교수는 "혀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분의 섭취"라며 "양치질을 할 때에도 반드시

혀바닥과 함께 혀의 안쪽까지 구석구석 닦아 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주말에 떠나는

문화체험

충북 영동의 포도, 경기도 이천의 복숭아 여행

<주말여행>

늦여름 포도-복숭아 여행 입안 가득 달콤

[출처: 와우트래블 2004.8.25]

그 곳에 가면 달콤한 냄새가 난다. 생각만해도 입안 가득 침을 흥건히 고이게 하는 맛있는 향기다.

당도에 관한 한 따라올 과일이 없다는 늦여름 대표 과일인 포도와 복숭아. 영동에서는 그 포도가 지금 까만 자색으로 익어가고 있으며, 장호원에서는 가지 사이로 복숭아가 탐스러운 제 몸뚱이를 한껏 내밀고 있다.

6주간KTTU

눈코입 모두가 즐겁고, 농민들의 넉넉한 인심에 마음까지 즐거운 늦여름 과일여행을 소개한다.

◇내 고장 8월은 캠벨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1000 리 금강길이 잠시 쉬어가는 곳. 포도로 유명한 충북 영동군 학산면 모리마을(mori, dbang, or. kr)이다.

일명 금강모치마을로 불리는 이 곳은 포도명산지인 영동군에서도 포도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인데다 밤낮의 일교차가 커 당도가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농약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저 물로 씻지 않고 먹어도 될 만큼 식품안전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가 흔히 '머루포도'로 부르는 마스켓 베일리(MBA) 품종을 국내에서 처음 재배한 곳도 바로 이곳 학산면 일대다.

모리마을은 지금 캠벨포도따기가 한창이다. 9월초에는 마스켓 베일리 품종이 나오며 10월부터는 끝물 포도인 세레단을 서리가 오기 전까지 수확한다. 모리마을 주민 대부분이 포도에 대해 잘 알지만 모리 토박이인 모리산골포도농원(www. moripodo. com)의 이원희씨(59)는 그 중에서도 포도박사로 통한다.

비가림막을 개선해 포도병충해를 줄여 농촌진흥청 서울대 등에서 강의도 했을 정도다. 미리 예약을 하면 포도따기는 물론 포도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011)459-8796 포도따기 체험 외에 염소 토끼 토종닭 등 가축농장 견학과 기장 참깨 고구마 도라지 더덕 등 농원 체험도 가능하다. 세끼 식사와 숙박을 포함해 어른 4만원, 대학생 이하 학생은 3만 5000원이다. 가족의 경우 할인도 가능하다. (043)743-8852

28~29 일 영동천 인근 광장에서는 2004 영동포도페스티벌이 펼쳐진다. 포도 빨리먹기, 포도알 멀리빨기 등 포도와 관련한 놀이는 물론

포도미용체험, 와인담그기체험, 지게지기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됐다. 어린이를 위한 포도페이스페인팅과 봉숭아물들이기 코너도 준비됐다. 29 일에는 포도관광열차를 운행한다. 서울역에서 오전 8 시 출발하며 영등포 수원 평택역에서 정차한다. 포도축제와 무주구천동을 관람한 뒤 오후 9 시 40 분 서울에 도착하는 코스다. 참가비는 서울역 출발시 4 만 1000 원. (02)853-7787

모리마을 및 영동 일대의 주요 관광지로는 천년수령을 자랑하는 거대한 은행나무가 있는 영국사와 난계 박연을 기리는 난계국악당 등이 있다.

◇어여쁜 젓가슴같은 수밀도를 찾아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은 전체 5802 가구 중 580 가구가 복숭아를 키우는 복숭아마을이다. 수밀도로 불리는 미백도와 백도인 천중도, 그리고 장호원황도로 불리는 황도 등 3 종류를 재배하고 있다. 이중 미백도는 수확이 끝났으며 지금은 천중도가 한창이다.

빨간색을 띤 천중도는 껍질을 깎으면 단물이 줄줄 흐르는 고급 품종이다. 황도는 장호원의 명물이다. 껍질은 두꺼운데 과육은 물러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먹기에 특히 좋다. 복숭아 특유의 달콤한 향과 과즙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품종이다. 이천시장호원 복숭아축제도 이 황도의 수확시기에 맞춰 개최되는데 올해는 9 월 16 일부터 19 일까지 청미천 둔치 일대에서 열린다.

복숭아를 따는 데는 숙련된 노하우가 필요해 보통 복숭아농원에서는 따기 체험보다는 판매 위주의 행사를 벌이고 있다. 진암 4 리의 우성농원(031-641-2013)과 풍계리의 에덴농원(017-345-3403) 등에서 복숭아밭 견학과 구입이 가능하다.

주변 관광지로는 이천도예마을 세계도자센터 해강도자기미술관 등 도자기 관련 명소들이 있으며 이천온천과 여주신록사 영릉 명성황후생가 등이 있다.

지방본부소식



지부소식

